



에이아이카데미

AI 기반 대화형 인강으로 개인 학습효율 ‘쑥’

자동 변환 솔루션 ‘GPTalk’, 가상 교사·학생 상호작용
실시간 질의응답 가능…기술 교류 등 경쟁력 향상 매진
프리팁스 프로그램 선정…교육기관 B2B 서비스 확대



정인택 대표가 지난 10월 15~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 지능 테크 플러스(AI TECH+)' 2025'에 참가해 방문객에게 GPTalk을 소개했다.

AiCADEMY

인공지능(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생성형 AI에 기반한 개인 인터넷 강의 학습도움을 개발해 에듀테크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는 기업이 있다.

광주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에이아이카데미(대표 정인택)는 기존 일방향적인 인터넷 강의 시청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질문·답변을 하며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전주 출신인 정인택 대표(34)는 어렸을 때 컴퓨터 판매·교육과 GIS(지리정보시스템) 벤처기업을 경영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컴퓨터를 가까이 접하며 지내왔고 자연스럽게 대학도 전북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학창시절 AI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 본 그는 광주 과학기술원(GIST)으로 진학해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위한 융복합 문화 가상 스튜디오’.

‘사회적 소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능형 도구 기반 콘텐츠 제작·향유 지원 기술 개발’ 등 다양한 국가 R&D 과제에 적극 참여하며 AI 연계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석사 졸업 후 대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연구원 취업도 생각했지만, AI 교육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으며 창업을 꿈꿨다.

정 대표는 지난해 AI 기반 대화형 인터넷 학습지원서비스 ‘GPTalk’을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프리팁스(시드트랙)에 선정돼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고 올해 2월 회사를 설립했다.

GPTalk의 가장 눈길을 끄는 기능은 가상 교사·학생, 실시간 답변서비스다.

사전 녹화된 인강 콘텐츠에 거대 언어 모델(LLM·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해 마치 수강자가 교실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특히 사용자 학습 맥락을 고려하고 정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구축한 벡터 데이터베이스(vector DB) 기반의 검색 증강 생성(RAG) 기법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기술을 활용한다. 수강자가 강의를 보며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 시점·내용, 학습 시간 등을 리포팅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수강자가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 시점에 가상 교사가 선제적으로 답변을 하는 기능도 갖췄다.

정 대표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인터넷 강의 불편사항은 집중력 저하, 질문 불편 등이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했지만, 현장 강의와 비교하면 여전히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강의 질의응답 절차를 보면 학생이 질문할 것이 생기면 유사질문을 검색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답변을 기다린다”며 “GPTalk을 활용하면 학생의 질문 내용, 답변 수준에 따라 실시간 답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박람회 참여해 투자자에게 프로그램



정인택 대표

을 설명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10월 15~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전시회인 ‘AI 테크 플러스(TECH+)' 2025'에 참가해 방문객에게 GPTalk을 소개했다. 또 지난 4월 한국엔젤투자협회 호남권 엔젤투자허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공동 주최·주관한 ‘2025년 호남권 엔젤투자특목’에 참가해 투자자들과의 1대 1 상담을 통해 투자 유치에 나섰다.

그 결과 에듀테크 기반 인강 콘텐츠 제작·교육업체인 생코에듀와 지난 8월 광주과학기술원(GIST) 창업진흥센터에서 AI 에듀테크 혁신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AI 기술자문 및 노하우 공유,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력, 에듀테크 혁신 기술 연구, 콘텐츠 제작 분야 상호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LLM 기반 상호작용 학습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해, 교육기관과 기업 대상으로 B2B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인택 에이아이카데미 대표는 “동일한 교재, 주제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학습 결과는 천차만별이다”며 “우선 중·고등학생, 공무원의 필수과목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장을 공략해 인지도를 높이고, AI 에듀테크 생태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중기 기술협력의 장 ‘호남 Tech-Connect Day’ 성황

광주혁신센터-한국산업은행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강화
보육기업 등 41개 기업 참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광주 상무지구 스테이지 2층 다목적홀에서 ‘호남지역 Tech-Connect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 중인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 간 상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술 기반 협업 모델을 확산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지난날 열린 ‘광주창업페스티벌’에서 조성된 개방형 혁신 분위기를 실질적인 기업 교류로 확장하며,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행사에는 지역 산업을 이끄는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혁신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24개사 등 총 41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1대 1 미팅을 통해 기술 협력과 공동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활발히 교류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광주 상무지구 스테이지 2층 다목적홀에서 ‘호남지역 Tech-Connect Day’를 개최했다.

특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 참여 기업들도 함께해 지역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첨단랩·아이메디텍은 IR 세션을 통해 기술력과 글로벌 진출 전략을 공유했고, STH·파인트크리아 등은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실무형 논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이관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은 “센터는 지역 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은행 등과 협력해 실무형 미팅과 분야별 매칭을 상시화하며,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GICON, 투자진흥지구 3차 기업유치 설명회

DMTS서 콘텐츠기업 대상 맞춤형 상담·지원제도 안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에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3차 기업유치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의 비전과 경쟁력, 그리고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해 수도권 콘텐츠기업의 광주 이전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콘텐츠·미디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간 및 제작 인프라, 세제·보조금 등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으며, 세션 이후에는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업

별 상황에 맞춘 이전·창업 절차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업계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스튜디오 기반 제작 인프라, 세제·보조금 적용 범위, 입주 일정 등 실무 중심의 질문이 쏟아지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QR 사진신청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총 901명의 관람객이 부스를 방문했고 이중 18건의 1대 1 심층 상담이 진행되는 등 실질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에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3차 기업유치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